

주일설교 요약: 신화수

은혜의 부스러기

마가복음 7:24 - 30

본문 말씀의 예수님은 두로 지역으로 가셨고, 사람들을 피하려 하셨습니다. 어떤 이방인 여자는 예수님을 찾아와 딸에게 들린 귀신을 내쫓아주시길 간청하였습니다.

은혜의 부스러기로도 충분합니다

예수님은 아이와 개가 빵을 먹는 것을 비유로, 유대인에게 줄 복을 이방인에게 주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하셨습니다. 이는 여자에게 자신이 내쳐지는 것처럼 들렸을 것입니다. 그에 여자는 그 부스러기라도 개들이 먹을 것을 이야기하며 예수님께 믿음을 보였습니다.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은혜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보고도, 즉 큰 빵덩어리와 같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께 그 은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이 여성은 예수님을 믿었고, 그 은혜의 부스러기 만으로도 딸이 고쳐질 수 있었습니다.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기에 그 작은 부스러기 만으로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것입니다. 작은 믿음으로 얻은 은혜만으로도 우리에게 넘칠 것입니다.